

온두라스에서 온 사랑의 편지

2014 년 4 월

좌충우돌 학교생활...



드디어 2 월 첫주 개학을 하면서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에 밤잠을 설치고 샤워한다고 새벽 3 시부터 일어나 온 집안을 들뜨게 만들더군요. 참 오랫동안 학교라는 곳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겐 커다란 모험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는 데 주눅들기 보단 흥분의 도가니로 신나하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음 저변엔 이곳 아이들이 자신들을 친구로 받아줄 지 불안한 것도 있나 봅니다. 우리 씩씩한 삼총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매일 학교를 다닙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매일 친구들은 물어봅니다. 레슬리는 눈이 찢어진게 엄마를 닮은 것 같고 사라는 피부색이 엄마를 닮은 것 같고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의 연관성을 찾으려 눈을 씻고 찾아봅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입니다. 가끔 아이들의 난감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나쁜 영향력을 받을까 염려하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엄마의 잔소리가 줄을 잇습니다. 가끔 학교에 들러 선생님들과 대화하며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모두들 믿음 안에 있는 선생님들로 엄격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진희...



코르테스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인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진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60 세의 한국인 엄마는 온두라스인... 아이가 2 살 때 엄마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 아이가 9 살이 된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고혈압으로 두 번이나 쓰러진 아빠는 일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진희의 도움으로 매일 거동을 합니다.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집도 은행에 잡혀 잃게 되어 먹을 것까지 떨어져 도움이 없인

하루 하루 사는 것이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는 6 개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아빠랑 하루종일 집에만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두 번이나 쓰러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되면 손을 쓸 수 없으니 각오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두 살때부터 엄마없이 아이를 키운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저희가 집을 구하는대로 진희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서류와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집이 구해지고 진희가 우리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길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갑자기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갈 곳 없을 때 로사리오의 자신의 집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기다 의사인 아들은 식료품의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 저희 식구들을 전격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입학금과 매달 학비가 만만찮게 들어가는 4 개월간 정말 온두라스에서 유일 무이한 후원자들이 저희들을 가족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71 세의

로사리오와 74 세의 에벨리오는 변함없는 잉꼬부부로 아이들에게 좋은 부부의 본을 보여주고 아들 까를로스 또한 효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저를 감격하게 합니다. 두 아이들의 아버지로 자신의 가정과 부모님을 책임지는 까를로스는 기꺼이 저희들을 돕기로 하고 로사리오 집에 있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꼬르테스에서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이기때문에 집세가 얼토당토 않게 비쌌습니다. 달러로 지불하길 원하고요. 방 2-3 개의 집이 매월 \$800~\$1000 입니다. 이 정도면 10 년 정도 월세를 내면 집을 사는 비용과 맞먹게 됩니다.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삽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 방이 많은 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매번 이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전에 말씀드린 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로사리오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방 7 개에 화장실 3 개의 집은 센터로 완벽합니다. 매매가는 약 1 억

3 천만원 정도 입니다. 은행에 넘어가 경매에 부쳐지기 전이라 좋은 가격에 나왔지요. 일단 가능하면 월세로 살다가 현금이 모아지면 집을 사는 것이 계획입니다. 진희도 빨리 와야하고 방한 개에서 4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모저모 훈련 기간입니다.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일에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도제목

1. 진희가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2. 센터 구입을 위한 물질이 공급되도록
3.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훈련하도록
4.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곳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 시작입니다. 36 도 정도인데 점점 더워진다고 합니다. 빨리 이 기후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온두라스에서 권혜영 올림